

SK, Topsoe와 연료전지 공동개발

SOFC 시스템 개발 및 사업화 계약 ... 2015년 가정용·발전용 상용화

SK그룹이 글로벌기업과 손을 잡고 차세대 친환경 연료전지 상용화에 나선다.

SK그룹은 세계적인 연료전지 생산기업인 덴마크 Topsoe Fuel Cell과 차세대 연료전지인 SOFC(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공동기술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5월15일 발표했다.

계약에는 정만원 SK 부회장, 문덕규 SK E&S 사장, 김동섭 SK이노베이션 글로벌 테크놀로지 총괄, 할도 Topso 회장, 라스 마티니 CEO(최고경영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청정에너지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덴마크 정부를 대표해 프레데릭 크리스티안 왕세자와 산업계 대표인 칼스텐 뎀바드 덴마크경제인연합회 사무총장 등도 자리를 같이했다.

SK와 Topsoe는 2011년 5월 이명박 대통령과 라스 뢰케 라스무슨 덴마크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SOFC 공동사업화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해왔다.

연료전지는 LNG(액화천연가스), 디젤, 바이오가스 등을 연료로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로, 기존 발전기 보다 효율성이 좋아 차세대 발전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SOFC는 연료전지 중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연료의 다양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용범위가 넓어 가정용, 대형 건물형, 공장형 등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

SK그룹은 2015년부터 가정용과 발전용 연료전지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한편, 프레데릭 왕세자 일행은 계약식 참석에 앞서 SK T-타워에 있는 T-um을 방문해 자동차 체험관과 홈디스플레이 체험관을 둘러봤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5/15>